

# 장백산천지

제 286 호

2016년 9월 24일

토요일

## 대륙 민중들 리훙쯔 사부님께서 추석을 즐겁게 보내시길 삼가 축원합니다

[밍후이왕] 추석명절이 다가올 즈음하여 밍후이왕에서는 전 세계 각 지역에서 보내온 파룬궁 창시인 리훙쯔 사부님께서 즐거운 추석 보내시길 삼가 축원 드리는 수많은 축하카드와 축하편지를 받았다

이런 축하편지는 파룬궁수련생 외에 아직 파룬따파(파룬궁)를 수련하지 않는 민중들도 있다. 그들은 파룬궁진상을 똑똑히 알았기에 생활 중에서 어려움을 해결하고 파룬따파의 보호를 받았으므로 파룬따파 사부님의 은혜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감사를 그렸다.

차 사고에서 조금도 손상 받지 않은 스촨 성 다저우(四川省达州) 시 다촨 구 화홍 향의 농민은 리 선생님께서 즐거운 추석 보내시길 삼가 축원했다. “저는 중대한 차 사고에서 무사하였습니다. 추석이 다가올 즈음하여 저의 온 가족은 리 선생님께 명을 구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표합니다. 성심으로 리 선생님께서 즐거운 추석 보내시길 삼가 축원 합니다.”

베이징시민은 “리 대사님께서 즐거운 추석 보내시길 축원합니다! 파룬따파 리 대사님께 감사 드립니다. 저의 집 9명 식구와 일부분 친척들은 파룬따파의 진상을 들었고 또 중공의 당, 단, 대 조직에서 탈퇴 했습니다.”



■ 밍후이왕에서는 전 세계 각 지역에서 보내온 파룬궁 창시인 리훙쯔 사부님께서 즐거운 추석 보내시길 삼가 축원 드리는 수많은 축하편지와 축하카드를 받다

다. 그때로부터 온 집안이 행복하고, 만사가 뜻대로 이루어 집니다.”

해군 모 연구소 기술인원들은 축하편지에서 말했다.“오늘의 중국대륙은 도덕이 무서운 경지로 떨어져 사람들이 좋은 일도 감히 못하며, 사람마다 이기적인 그늘에서 살고 있습

니다. 오직 파룬따파만이 이 세계에 광명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현재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부님께서 하루빨리 대륙에 돌아와 길을 잊은 생명을 구도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 날이 곧 돌아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



## 비장이 새로 자라난 아들

[밍후이왕] 15년전 나의 아들은 차 사고로 비장이 완전 부서져 수술하고 전부 비장을 뜯어냈다. 15년이 지나서 나의 아들은 다시 새 비장이 생겼는데 사정을 알고 있는 의사는 모두 놀라 외쳤다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사실이 눈앞에 놓여 있듯이 바로 파룬따파가 또 하나의 기적을 창조했고 우리 온 가족은 은혜에 무한히 감사하고 있다.

나는 1999년 이전에 수련을 시작한 파룬궁 수련생이다. 나의 아들은 비록 수련하지 않지만 파룬따파가 좋다는 것을 믿었다. 2000년 7월 9일 저녁 10시 좌우에 나의 아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동료와 외출하였다. 굽이 돌이에서 미주 향해 오는 큰 차를 피할 때 큰 차 조명이 너무 강한데다 길도 익숙하지 않은 그는 굽이돌이인 것을 모르고 길 옆의 작은 돌 기둥에 부딪쳤다. 뒤자리에 있던 동료는 그를 날아 넘어 길 옆의 언덕에 떨어졌다. 되살아난 후에야 비로서 사고가 생겼다는 것을 알고 다그쳐 나의 아들의 이름을 불렀으나 대답이 없었

다. 후에 매우 먼 곳에서 인사불성이 그를 발견하고 한켠으로는 울면서 나의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한켠으로는 기어서 길옆으로 와서 지나가는 차를 막았다. 오랜 시간 차량 한대도 막지 못하자 어찌 할 수 없는 동료는 기어서 부근의 마을에 갔다. 한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문을 두드렸더니 원래 마을의 치보주임이였다. 정황을 말한 후 치보주임은 몇 사람을 찾아 농가용 삼륜차로 다그쳐 사고가 생긴 장소에 와서 먼저 나의 아들을 마을 위생소에 보내여 간단한 치혈처리를 하였다. 마음씨 착한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들 두 사람을 병원에 보냈다. 이 때는 이미 다음 날 아침 3시 경 (4면에 계속)

## 한국, 파룬궁 反박해 17주년 기념행사 개최 (간략)

[밍후이왕] 2016년 7월 17일, 파룬궁 반(反)박해 17주년을 기념해, 한국의 800명 파룬궁수련생들이 서울시 중심에서 집회와 퍼레이드를 개최해 중국공산당 해체와 박해 중지를 호소했다. 기세 드높고 정정당당한 대형 퍼레이드 장면은 한국을 방문한 많은 중국관광객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다.

1999년 7월 20일 중국공산당 장쩌민 집단에 의해 개시된 파룬궁 박해는 이미 17년째 이어지고 있다. 매년 이때가 되면 전 세계 파룬궁수련생들은 모두 '7.20 반박해' 행사를 개최해왔다.

당일 오전, 한국 수련생들은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오후에는 중국관광객이 집중된 명동 일대에서 성대한 퍼레이드를 가졌다.

**"악은 정의 이길 수 없어, 기필코 멸망할 것"**

한국파룬따파불학회 권홍대 회장은 당일 집회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지금까지 실명이 밝혀진 것만으로 파룬궁수련자 4천여 명이 잔혹한 고문으로 목숨을 잃었고 강제 장기적출로 희생된 수련자 수는 100만 명을 훨씬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 중국 정부는 파룬궁 탄압을 중단하고 장쩌민 등 가해자들을 사법처리해 파룬궁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시아 철학회 회장이자 한국 부산대학 철학과 교수인 최우원 박사는 집회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중국공산당은 집권 이래 8천만 중국인을 잔혹하게 살해함으로써 중국인들을 도tan 속에 빠뜨렸다. 바로 이처럼 인성을 잃고 도덕이 극도로 부패해진 중국사회에서 중국인들이 바른 길로 이끄는 누군가의 손길을 절실히 필요로 할 때 마침 리훙쯔(李洪志) 선생님에 의해 고덕대법 파룬궁이 중국전역에서 널리 전파되기 시작했으며 짧디 짧은 몇 년 사이에 1억 명의 중국인이 수련하게 됐다."

"시악한 중국공산당 우두머리 장쩌민 일당은 파룬따파의 전파로 인해 저들의 독재정권이 위협을 받게 될까 두려워한 나머지 1999년부터 일방적으로 잔혹한 탄압을 개시했으며 심지어 파룬궁수련생의 몸에서 장기를 생체로 적출해 팔아먹는 전대미문의 극악무도한 만행을 저질렀다."

최교수는 또 "그러나 역사상 악은 정의를 이길 수 없었다. 악은 기필코 멸망



7월 17일, '7.20 반박해 17주년' 기념집회에 앞서 한국 파룬궁수련생들이 단체연공을 하고 있다.

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며 "전 세계인들은 마땅히 힘을 합쳐 이러한 악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사실상 파룬궁의 '진선인' 원칙은 우리의 행위를 지도하는 아주 좋은 표준이며 이에 따른다면 우리 후대들도 모두 바른 길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17년간, 파룬궁수련생들은 폭력에 굴하지 않았고, 막강한 권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꿋꿋이 폭력을 반대하고 강권을 반대해왔다"며 "이에 한국에 있는 우리 중국 민주인사들도 지극한 경의를 표하며 여러분들에게 커다란 성원과 지지를 보내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중국 관광객 엄지손가락 세우며 지지 표시**

이날 오후 2시 30분, 파룬궁수련자들로 구성된 천국악단의 웅장한 연주와 함께 2부 행사인 퍼레이드가 시작됐다. 퍼레이드는 시청과 명동 일대에서 파룬궁의 아름다움을 시민에게 알리고 박해 중단을 호소하며 강제 장기적출 저지를 촉구했다.

퍼레이드 행렬이 중국관광객이 집중된 명동 일대를 지날 때, 중국

관광객들은 중국대륙에서 접할 수 없던 파룬궁 진상을 알리는 현수막과 장엄한 퍼레이드 앞에서 충격을 받은 듯 모두 두 눈이 휙둥그래졌다. 이들은 진상을 알리는 방송에 귀를 기울이며 퍼레이드 장면을 열심히 지켜봤다. 어떤 이는 핸드폰을 꺼내 퍼레이드장을 촬영하기도 했다. 또 엄지손가락을 세워 지지를 보내는 중국인들도 많았다.

일부 중국관광객들은 기세 드높은 퍼레이드 장면에 감화되어 자연스레 진상을 알게 되고는 흔쾌히 삼퇴(공산당, 공청단, 소선대 등 중국공산당 조직에서 탈퇴하는 것)를 선택했다.

**"생체 장기적출을 알고도 모른 체 했다면 장래 모두 책임져야 할 것"**

당일 광주에서 결혼식 참석차 서울에 왔다가 퍼레이드 "장면을 관람하고 파룬궁 진상을 자세히 알게 되었다는 서동길씨(60대, 남자, 자영업)는 오늘날 중국에서 생체 장기적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각국 정부가 알고도 모른 체했다면 장래 모두 책임져야 한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3면에 계속)

(2 면의 계속) 장쩌민 사법처리와 박해 중지, 파룬궁 명예 회복 요구”

창춘에서 온 교포 파룬궁수련생 김학철씨(44)도 중국공산당의 파룬궁 박해를 저지하기 위해 당일 행사에 참석했다. 중국공산당은 파룬궁 박해 초기에 박해를 유지하기 위한 구실을 찾기 위해 무고한 파룬궁에 죄를 뒤집어씌우고 심지어 천안문분신자살 자작극을 조직해 TV, 신문 등 모든 언론을 동원해 천지를 뒤엎을 듯이 파룬궁을 모함하고 거짓 선전을 이어가며 전 중국인을 속였다. 파룬궁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추악화 선전에 직면해 광범위한 중국인들에게 실상을 알리기 위해 김학철씨는 TV 신호를 삽입해 파룬궁 진상을 알리는 2002년 ‘창춘 TV 프로그램 삽입 사건’에 참여했다. 이로 인해 그는 2003년 당국에 체포됐고 지린성 스팅스링(四平石嶺) 감옥에 감금됐다. 감옥에서 그는 7년 반 동안 호랑이 의자, 비닐봉지를 머리에 뒤집어 씌우기 등 온갖 비인간적인 고문을 받았다.

그가 감옥에 감금된 기간 한국 국회의원과 많은 국민들이 그를 구원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했다. 이에 그는 감사를 표하며 “당시 한국 국회의원과 국민들이 정의의 손길을 내보냈기에 그들은 감히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고 저에 대한 박해가 예전에 비해 많이 수그러들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파룬궁 박해를 중지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잔인한 박해를 알리는 일이라며 하루빨리 장쩌민에 대한 사법처리가 이루어지고 박해가 중지됨으로써 파룬궁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희망했다.



일찍이 파룬궁 진상을 알리기 위한 ‘창춘 TV 프로그램 삽입’에 참여한 이유로 체포돼 감옥에서 7년 반동안 비인간적 고문을 당했던 김학철씨가 어린 아들과 함께 반박해 행사에 참석해 박해를 중지하고 파룬궁의 명예를 회복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우리에게 온전한 가족을 돌려달라”

한국에 있는 중국교포 수련생 김광철씨 어머니 죄명숙씨는 파룬궁 수련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중국공산당에 체포돼 불법 노동교양 박해를 받았다. 작년 10월에 또 연길에서 무고하게 경찰에 체포됐는데 현재까지 여전히 연길간수소에 수감되어 있다.

김광철씨는 “어머니는 원래 온 몸에 병이 들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계셨는데 ‘진선인’의 원칙에 따라 파룬궁 수련을 한 후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이 박해를 개시한 후 어머니는 수련을 견지한 것 때문에 잇달아 7 차례 체포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수련하지 않지만 파룬궁이 좋다는 것을 알고 계시며 그간 역시 어머니에 대한 박해 때문에 큰 압력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머니를 지지하십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반드시 하루빨리 파룬궁박해 주범 장쩌민을 법에 따라 심판함으로써 박해를 중지시켜야 합니다. 어머니를 비롯한 불법 감금된 파룬궁수련생을 즉각 무조건 석방하고 우리에게 온전한 가족을 되돌려 달라.”고 중국공산당 당국에 촉구했다.



중국에서 온 교포 파룬궁수련생 김광철씨와 박금복씨는 연길 구치소에 불법감금 된 그들의 어머니와 언니를 즉각 석방할 것을 중국공산당 당국에 요구했다.

당일 행사에 참석한 또 다른 교포수련생 박금복씨도 각계에 언니의 구원을 호소했다. 그녀의 언니 박금자씨도 파룬궁 수련을 이유로 현재 연길간수소에 불법 감금되어 있다. 66세의 박금자씨는 퇴직 전 공무원이었다. 2015년 12월 27일 지린성 용정시에서 파룬궁 진상을 알리다가 사복경찰에게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그녀 집을 수색해 4만 위안(한화 680만원에 상당)의 현금과 컴퓨터 2대, 프린터 4대를 압탈해갔다.

박금자씨의 남편은 한 달에 몇 차례 면회를 갔지만 모두 거부당했고 한국에 있는 작은 딸을 비롯한 동생들도 두 번이나 면회를 갔는데 모두 당국에 의해 거부당했다. 가족은 전화 연결도 안 되고 생사여부도 몰라 매우 걱정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 있는 동생 박금복씨도 파룬궁을 수련하기에 중국에 돌아가 언니를 볼 수 없는 상황이라 매우 답답한 심정이다.

박금복씨는 “언니는 단지 ‘진선인’에 따라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을 뿐인데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연길간수소는 죄 없고 선량한 우리 언니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

## 인도 동북부 2천여 학생들 파룬궁 수련 배워

[밍후이왕] 올해 7월, 두 명의 파룬궁수련생들이 인도 동북부의 편벽한 곳에 방문해 그 곳에 있는 2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파룬궁을 소개하고 공법을 가르쳐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커다란 환영을 받았다. 한 교장선생님은 수련생들에게 보낸 감사편지에서 “파룬따파(法輪大法)가 계속하여 널리 전파되어 세계를 아름답게 변할 수 있게 해주기를 기원합니다.”라고 전했다.

이 두 명의 파룬궁수련생들은 인도 동북부에서 4 주간 머무르며 공법을 가르쳤다. 이곳은 인도의 한 주에 속하지만 많은 현지인은 자신을 진정한 인도인으로 여기지 않고 있었다. 이들은 얼굴 특징상, 전통문화와 언어에 있어 몽골 족에 더욱 가까운 듯했다.



교장 선생님은 감사편지에서 “아주 유용하며 훌륭한 정보를 가져다 주었고 학생들에게 아름다운 체험이 되었다.”고 썼다.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진선인(真善忍)을 실천하는 수련 법을 확실히 배운 것 같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압력으로 충만해 있고 폭력과 박해가 창궐하고 있으며 젊은이들은 더욱더 그 유혹과 교란을 받기 쉽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바로 이때, 파룬따파가 왔습니다! 저는 파룬따파가 계속하여 널리 전파되어 세계를 아름답게 변할 수 있게 해주기를 기원 합니다” ◇



(1면의 계속) 이였다. 나와 남편이 병원에 다그쳐 왔을 때는 이미 자신의 아들을 알아볼 수 없이 얼굴의 상처는 너무 심했고 사자는 세개가 비틀어 불어졌다. 아들은 혀가 기본상 깨물어 끊어진 정황하에 아들의 첫마디는 : “괜찮아요, 사부님의 보호가 있으니 당신들은 두려워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우리를 안위했다. 전부의 검사를 마친 후 직접 구급실 입원했다. 점심 1시에 복부가 부어서 흉부보다 더 높은 것을 발견하고 의사는 내출혈이 있다고 예견하고 주사기로 피를 뽑아 검사하였다. 복강에 피가 너무 많아 B형 초음파도 똑똑히 보이지 않기에 의사들은 합동 진찰에서 먼저 수술하고 다시 출혈점을 찾는 결정을 내렸다. 결국 비장은 완전히 파손되어 수술에서 전부의 비장을 적출했다 잇따라 나의 아들은 정신을 잃고 깨여나지 못했으며 오직 약간의 기래가 목구멍에서 반응할 뿐 동공은 확산되었다. 온 병원 부서의 합동 진찰에서 의사, 원장은 모두 치료에 대한 신심을 잃었다. 우리의 강렬한 요구하에 병원에서는 삼문협(三門峽) 군분구 병원의 전문가를 련계하였다. 30분내에 전문가를 청해왔고 전문가는 지방색전(脂肪栓塞)진단을 내리고 즉시 조치를 취하였다. 24시간 후 아들의 의식은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5일간의 회복을 거치고서야 다시 밤새 사지를 잇는 수술을 하고 구급실에 한달간 주원했다. 병원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 말했다: 당신의 아들은 병원이 건립된 이래 가장 엄중한 환자입니다. 하지만 회복은 도리여 가장 빠르고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팔다리 세개가 끊어진 정황하에 아들은 하루도 지팡이를 쓰지 않았고 또한 반년도 안되는 사이에 직장에 돌아갔다. 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겉으로는 나의 아들이 그렇게도



큰 의외의 상해를 받았다는 것을 전혀 보아낼 수 없었다. 당시 이 일은 옹근 의료계통 및 아들 직장의 가족 구역에서 파문을 일으키였다.

2003년 아들은 신체검사할 때 비장 부위에 몇 센치메터 되는 한 물체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의사는 부비장이라 고 말했다. 2004년에는 또 조금 커졌고, 2015년에는 하나의 온전한 비장이 생겼다. 사정을 알고 있던 의사는 모두 놀라서 말했다 “불가능합니다”!

사실이 눈앞에 놓여 있듯이 파룬따파는 또 하나의 신비로

운 기적을 창조하였고 우리 온 가족은 은혜에 무한히 감사하고 있다. 나의 아들은 아직 수련에 들어서지 않았고 단지 파룬따파 서적을 보고 “파룬따파하오 (法轮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믿고서 파룬따파의 보호를 받았다.

아십니까? 오직 파룬궁 진상을 료해하고 “파룬따파하오 (法轮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믿으면 위험에 닥칠 때 진짜로 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